길이 없다

(마17:22-27)

22.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23.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24.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 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25.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26.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27.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길이 없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길이 없다'
오세영 시인이 쓴 <길이 없다>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를 노래하는 시인데, 그 중 몇 구절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바람은 꽃향기의 길이고 꽃향기는 그리움의 길인데 내겐 길이 없습니다 … 중략 … 강물은 꽃잎의 길이고 꽃잎은 기다림의 길인데 내겐 길이 없습니다'
꽃향기는 바람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꽃향기의 길이죠.
또 꽃향기를 맡다보면 누군가가 그리워집니다, 그리움의 길입니다.
꽃잎은 강물에 떨어져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강물은 꽃잎의 길이고, 꽃잎은 기다림의 길이라는 것은 꽃잎을 바라보면 꽃향기에서 생긴 그리움의 대상을 향하여 기다림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내겐 길이 없다.

여러분, 신앙의 길이 없어요, 요즘 교회의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선포의 길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철로가 길을 잃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큰 생각, 작은 생각, 여러 상념을 떠오르게 하는 간단하게 소개된 기적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성전세 반 세겔을 냈어요, 출애굽기 30장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낸 선민 남자들의 생명 값을 속전으로 성전에 내도록 정하셨습니다.
이 성전세를 모아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성전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날마다 상번제를 드려야 되고, 또 성전 건물을 관리하는 등등 여러 가지로 …
성전세를 내는 것이 의무화 돼있었는데, 또 어떤 학자는 자율적으로 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여간.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의 재촉을 받은 베드로가 집에 들어와서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말을 꺼내시면서,
'가서 물고기를 낚시로 한번 잡아서, 그 물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들어 있을 테니 나와 너를 위하여 그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치로 나와 같은 신분이 될 수 있도록 너희를 불러들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아버지가 주인이신 성전세를 아들들이 낼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나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우리가 내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에 메시지의 포인트가 있는데, 성전세를 내시는 과정을 가만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 한 세겔은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던 돈을 거기에 옮겨놓으신 것일까요? 그렇다면 아무리 주님이시라도 도둑질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것이 다 주님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회에 통용되는 법에 준해서 바라볼 때는 도둑질 아닙니까?

또 만약, 현행하고 있는 화폐에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롭게 생긴 돈이 그 안에 있게 하신 것이라면, 그러면 이건 위조화폐가 아니겠어요?
그 당시 통용되고 있는 화폐법에 의하면 분명히 화폐를 발행하는 발행처가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돈은 그 어떤 구겨진 천 원짜리 하나, 십 원짜리 하나라도 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것이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조화폐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당시 사회법으로 볼 때는 위조화폐를 만드신 것일까요?
그리고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서 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돈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살다가 불쑥 그냥 내버린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삶의 올바른 태도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니 일 년에 한번 내는 성전세 반 세겔을 내실 수 없을 만큼 여분의 돈을 준비하지 않고 사셨다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제자들 무리를 끌고 다니시면서… 너무 무책임하신 것 아니신가? 이 정도 여분의 돈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문이 들지만 뭐 다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간 핵심 포인트는 이 구절을 마태가 기록한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 같아요.

주안점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이 세상적인 조직 안에서 이 땅 위에서의 조직과 습관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대로 다 발휘하시면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는 얘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에 제일 두려워하시고 경계하시고 조심하신 것이 이 실족이에요.
실족이라는 것은 발을 헛딛는다는 얘긴데, 다시 말해서 길에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죠.
낭떠러지 위에 세워진 길에서 발을 헛디뎌서 굴러 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실족입니다.
그러면 어느 길에서 벗어나게 될까봐 이렇게 염려하시는 것입니까?
17장에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 변화산 체험에 나타난 것이 뭐였습니까?
뜻밖의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뜻을 두고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은 전부 이 구름 아래 세상, 이 땅 위에 있었으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서 뜻 밖에 천국, 구름 위의 세상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길을 내시는 거예요, 길.
그런데 그 길이 구름 아래, 이 땅 위에서 어느 지점까지 도달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내 삶이 십 년 뒤에는 얼마큼 잘 사는 지점에 도달하는 그 길을 가도록 돕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 구름 위로 가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능력이 나타나실 때마다 두려워하고 경계하신 것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의 길이 구름 아래 세상에 머물러서 예수님 당신을 이 땅 위에서 발전하는 길, 이 땅 위에서 개선되는 길, 이 땅 위에서 잘사는 길로 채택되어지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길, 구름 위로 올라가는 길, 이 세상을 빠져나오는 그 길이 묻혀버리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버리고 끊겨질까봐 항상 두려워하셨던 것이에요.

아들 되심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힘껏 다 발휘하신다고 한다면 당시 로마를 정복하셔야 되었고, 정복 못하시겠습니까? 말씀 한 마디로 '로마 황제와 원로원 귀족들과 군대 장관들은 다 죽어라' 하면 죽는 거예요.
그 생사여탈권을 주님이 쥐고 계신 건데요, 아들 되심을 다 발휘하신다면 로마뿐이겠습니까?
인도, 중국, 한반도 모두 정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아들 됨의 권세와 위력을 다 발휘해버리시면 사람들의 마음의 길은 기껏해야 어디까지 갑니까?
이 땅 위에서, 구름 아래 세상에서 '주님에게 잘 보여서 편안하게 살자' 하는 것으로 마음의 길이 다 정해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생애 삼 년 동안 조심하시고 조심하신 것은 당신으로 인해서 당신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아들 되심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길이 구름 위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구름 아래 머물러 있을까봐 제일 두려워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성전세를 내신 겁니다.
성전세를 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면 하나님의 아들 됨을 드러내라,'
성전세를 낸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사회의 조직의 말단,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들 됨을 이 사회 조직 내에서 드러내기 시작하시면 다 연관

되어 있으니까 그 조직 조직이 연관될 때마다 당신의 아들 되심의 권세와 위력을 다 드러내시면 사람들은 난리가 나지요, 그리고 예수님 쫓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말 한 마디로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인데, 그대로 하셨으면 다 쫓아다니고, 다 따라다녔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러한 이 땅 위에서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게 아니었죠.
이 땅 위에서 잘사는 상황, 이 땅 위에서 그럭저럭 안정된 삶을 보장하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길을 내시는데 구름 위 천국으로, 지금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내신 것이에요.
마음이 천국으로 가야 그 길을 소망하고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변화산에서 천국을 제시하신 이유가 땅에서 마음이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부산으로 나 있는 고속도로 경부선을 자동차로 가려면 마음에서 목적지를 부산으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이 있어도 목적지가 없으면 사람들은 가질 않아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목적지를 제시한 겁니다.

'구름 위의 세상이 너의 목적지이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시고 예고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름 위의 세상으로 길을 내시는 겁니다, 길을.
변화산 체험에서 목적지를 설정해주셨고, 그 구름 위의 하늘로 지금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돈을 꺼내는 이야기 바로 전에 다시 한 번 똑같은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넘기우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서 못박아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삼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예고하실 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다고 합니다.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천국을 보게 되고 천국에 계신 상황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이고 뭐고, 이 땅에서 그렇게 좋게 여겨졌던

모든 비전과 꿈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만큼 천국이 좋은 것이에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다 잊어버립니다.
천국의 실재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이 얘기는 왜 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좋은 천국, 나조차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좋은 천국, 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비전과 꿈과 희망도 다 망각할 정도로 좋은 천국,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지금 우리 마음이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예고하는 것인데, 제자들은 매우 근심합니다.
매우 근심합니다.

복음이 기쁜 소리예요.
지금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근심합니다.
기쁜 소식을 듣고 근심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시야가 구름 위의 세상을 지금 갈 곳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천국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가야 될 곳으로 생각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니까.
근데 모든 뜻과 소원은 이 세상 안에서 이루는 것으로 다 꽉꽉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똑같은 상태예요.
전혀 오순절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로 믿음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부산을 봐야 부산으로 난 길을 갈 텐데,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서 보는 것은 구름 아래 세상에서 내일을 보고 있고, 돈 많이 벌리는 미래를 보고, 더 건강해질 일 년 뒤를 바라보고 있고, 아들이 일류대학 뱃지를 달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마음에 와 전달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지만, 건강이 안 좋지만, 자식이 문제이지만, 사업이 안 되지만, 지금 얻어야 될 것은

천국인 거예요, 지금 내가 가야 될 곳은.
주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신 것을 그대로 다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가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길이 없어요, 길이.
신앙에 길이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길은 지금 여기서 천국을 갖는 겁니다.
돈 때문에 걱정이 될 때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아 내가 갈 길은 돈이 많이 벌리는 곳으로 도착해야 되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돈 벌리는 길을 보여주세요!' 이럴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시니까, 죽음은 이 땅 위에서는 길이 끝나는 지점이고 제자들은 아직도 이 땅 위에서 희망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끊어질까봐 매우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도 결국은 뭡니까?
내일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잘 먹고 사는 내일을 향해서 가고 싶은데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의 길은, 보세요!
베드로가 성전세를 걷는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들어올 때, 주님께서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땅 위에서 진행되어야 될 삶의 길은 하나님께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돈을 끄집어내시든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봐야 할 길,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지금 여기서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구름 위로 올라가야 구름 위에서만 들려질 수 있는 뜻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또 구름 위로 올라가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명이 수행되기 이전에 베드로와 같은 변화산에서의 체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체험을 일상화 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길을 내시는 거예요.
길을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길의 끝인 천국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의 실재를 인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여기서 천국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렇다고요?

지금 천국에 계신 하나님과 천군천사와 아브라함과 그 누구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묻혀버리고 길이 끊겨버렸어요.
기독교의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신앙의 길이 없어졌고, 복음의 길이 끊어져버렸습니다.
왜? 그 천국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누구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천국을 실재로 생각하지 않고 길이 끊겨져버렸어요.
그리고 전부 구름 아래 이 세상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만 찾으면서 비전 노래를 하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현실은 성전세를 내신 예수님의 관심, 그 예수님의 관심이 하늘 위에서 결정돼서 이루어져 갈 것이에요.
우리가 따라야 될 마음의 길은 그 길이 아닙니다.
이 땅 위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야 될 마음의 길은 주님이 염려하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길, 지금 여기서 마음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몸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보고 느끼듯이 우리 마음이 성령님을 통하여 천국을 보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기 위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 길이에요, 천국 길.

여러분!
길을 내신 분 pathfinder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신 길을 따라 오늘도 지금 여기서 내 마음은 천국에 구름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구름 위로 올라간 마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뜻하신 바 음성이 들려져서 이 몸이 그 뜻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몸소 이 땅에 오셔서 내주신 그 길이 자꾸 시야에서 사라지고 막혀버리고 맙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도달할 수 있는 천국에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가서 도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육체가 걸어가야 될 길은 구름 위에서 뜻하신 바대로만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